

「장수산 1」 _ 정지용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벌목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드리 큰 솔이 베어짐
직도 하이 골이 울어 메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 직도 하
이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녀! 달
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윗
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
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長壽山)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1」

*벌목정정: 『시경(詩經)』의 ‘소아(小雅) 벌목(伐木)’ 편에 있는 구절.
커다란 나무를 산에서 벨 때 쩡 하고 큰 소리가 난다는 뜻.

*조찰히: 맑고 그윽하게.

*울연히: 홀로 우뚝하게.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황해도에 있는 장수산의 눈 내린 겨울밤 풍경을 통해 절대 고요와 탈속적 경지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시이다. 화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세속적인 욕심을 초월한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태도를 뒤따르고 싶어 한다. 고요한 산속 풍경과 달리 심하게 동요하는 내면의 고뇌를 지닌 화자는 차갑고 우뚝하게 서서 겨울을 견디는 장수산처럼 자신도 슬픔이나 꿈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겨울밤을 보내며 시련을 견디어 내려는 의지를 다진다. 동양적 은일(隱逸) 정신에 대한 지향을 통해 일제 강점기 말의 고통을 인내하고자 했던 시인의 마음이 예스러운 말투의 산문적 진솔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에 담겨 있다.

- 벌목정정이랬거니 ~ 돌아옴 직도 하이
: 깊고 울창한 장수산의 고요
- 다람쥐도 ~ 걸음이란다?
: 적막한 장수산의 눈 내린 겨울밤
- 윗절 중이 ~ 줍는다?
: 탈속적 태도를 본받고자 하는 정신적 지향
- 시름은 ~ 흔들리우노니
: 시름에 젖은 화자의 내면
- 오오 ~ 한밤내 —
: 장수산에서 겨울을 보내며 시련을 견뎌 내겠다는 의지

✓ 주제 : 장수산의 절대 고요와 탈속적 지향

- ① 현대 일상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어미(‘-ㅁ 직도 하이’, ‘희고녀’ 등)의 사용을 통해 예스러운 분위기 조성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장수산의 고요 속에서 자기 내면의 심한 동요를 인내해 내려는 태도를 드러내면서 ‘오오’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감정의 고조를 표현하고 있다.
- ③ ‘겨울 한밤내’는 화자가 인내의 태도를 드러내는 시간이다.
- ④ 이 작품은 산(山)을 공간적 배경이자 중심 대상으로 삼아 탈속의 경지를 정밀하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속세와 단절된 절대 고요의 공간인 장수산에서 일제 강점기 말의 정신적 고통을 이겨 내려는 동양적 은일(隱逸) 정신을 담은 시이다. 한편, 이러한 주제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⑤ ‘조찰히 늙은 사나이’로 지칭되는 ‘윗절 중’이 승패에 초연한 듯이 여유와 무욕의 태도를 보여 주는 모습은 장수산이 지닌 탈속적 성격과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
- ⑥ ‘차고 울연히’는 겨울 장수산의 모습에 대한 표현인 동시에, 세속적인 감정이나 열망에 해당하는 ‘슬픔도 꿈도’ 버리고 정신적 고통을 이겨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환기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
- ⑦ ‘골이 울어 메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 직도 하이’라는 시구는 ‘찌르렁’이라는 실제로는 나지 않는 소리를 언급함으로써 장수산 속의 고요를 부각한 것이다.
- ⑧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라는 시구는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장수산의 절대 고요를 강조하고 있다.
- ⑨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녀!’에서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활용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장수산을 세속과 거리가 먼, 순수성을 간직한 공간으로 느껴지게 하고 있다.

[T H E - 깊 은 독 해]

* 제목의 ‘장수산’은 황해남도 재령군에 있는 747미터의 산으로, 황해도의 금강산이라 불린다.

벌목정정(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름답리 큰 솔이 베어짐 직도 하이

→ 큰 나무를 벨 때 ‘쨍쨍’하는 소리가 난다고 하였는데, 과연 아름답리 큰 소나무도 베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뜻이다. 실제로 나무를 베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베어질 때 나는 소리를 상상한 것이다. 이때 ‘벌목정정’은 벌목할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낸 말로, ‘정정’이 한자를 음차한 의성어이며, 청각적 심상을 유발한다. ‘이랬거니’, ‘베어짐 직도 하이’ 등의 고풍스러운 시어를 사용하여 예스러운 분위기, 동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어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골이 울어 메(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 직도 하이

→ 나무 베는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골짜기를 울리면서 돌아올 만하다는 뜻으로, 청각적 심상을 통해 역설적으로 장수산 겨울 숲속의 울창함과 고요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깊고 울창한 장수산의 고요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녀!

→ 작은 짐승의 움직임조차 없는 고요함이 뼈에 사무치며, 눈 내린 밤 풍경이 종이보다 더 희구나, 라는 뜻이다. ‘깊은 산 고요’,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라는 표현을 통해 장수산의 적막함과 고요함을 알 수 있다. ‘산 고요가 뼈를 저리우는데’라는 표현은 장수산의 고요함이 마치 추위처럼 살을 파고들어 뼈를 저릴 만큼 강하다는 점을 표현한 시구로,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장수산의 절대 고요를 강조한 표현이다. (청각의 촉각화로 보기도 한다.) ‘눈과 밤’은 눈에 덮인 밤 풍경을 의미하므로 계절적, 시간적 배경이 드러난다. ‘ 종이보다’라는 표현에서 비교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희고녀!’라는 표현은 장수산의 고요한 풍경을 색채 이미지로 나타낸 표현이자, 영탄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 때맞추어 보름달이 밝게 떠오른 것은 오늘 같은 밤에 걷기 위한 것이 아닌가? 라는 뜻이다. 즉, 때 맞추어 보름달이 떠오른 것이 지금 같은 밤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보름달이 비친 골짜기를 걷는 상황을 은차 있게 표현하였다. ‘걸음이란다?’는 ‘걷기 위한 것인가?’ 정도의 의미이다.

▶적막한 장수산의 눈 내린 겨울밤

윗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행위는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 초월적 경지를 나타낸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라는 후각적 이미지는 여유와 자족, 무욕의 정신세계를 의미하는 말로, 탈속적 이미지를 환기하며, 장수산의 이미지와 조응된다. 이러한 ‘내음새를 줍는다’는 표현은 후각적 대상을 시각적 대상으로 나타낸 표현에 해당한다. 종합해서 해석해보자면, 여섯 판을 내리 지고도 (여유롭게) 웃고 돌아간 윗절 중(‘조찰히 늙은 사나이’)이 남긴 무욕의 분위기를 본받을까? 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윗절 중’의 탈속적 경지를 되따르고 본받으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으며, 늙은 사나이의 모습을 통해서 장수산의 탈속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탈속적 태도를 본받고자 하는 정신적 지향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 바람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화자는 시름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화자의 내면적인 고뇌가 드러나며, 화자가 장수산의 고요함과 합일하지 못하는 상태를 알 수 있다.

▶시름에 젖은 화자의 내면

오오 견디랴다 차고 울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시름을 의연하게 견디며, 슬픔도 꿈도 모두 장수산의 적막 속에 묻어 버리겠다는 하고 있다. ‘견디랴다’라는 표현에서 시름을 이겨내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며, ‘겨울 한밤내’는 화자의 인내의 시간에 해당한다. 감탄사 ‘오오’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영탄적 표현)

▶장수산에서 겨울을 보내며 시름을 이겨내겠다는 의지

→ 의도적으로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고 시행을 종결하지 않음으로써, 시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을 준다. 이는 화자의 정서적 흐름이 내면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앞부분에서는 장수산의 모습을 묘사하고, 뒷부분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선경후정의 전개방식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장수산’의 상징적 의미

이 시에서 ‘장수산’은 절대 고요의 공간으로, 세상과 단절되어 화자에게 적막함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이러한 고적함은 ‘겨울 한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화자는 이곳에서 온갖 세사사를 잊고 세속에 대한 초월과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장수산 속 겨울 한밤’은 세속적 가치와 단절된 오직 자연 속에 동화된 무욕의 삶을 상징하면서 탈속의 경지를 드러내게 된다.

[수능적 독해 Point]

- 화자 :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 [장수산의 고요함을 느끼는 이]
- 상황 : 고요한 장수산의 겨울밤 정경을 그리고 있음
- 정서·태도 : 은밀적(세상을 피하여 숨음)

[연 관 - 기 출 문 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벌목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도리 큰 솔이 베혀짐
죽도 하이 꼴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 죽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뽀새도 울지 않아 ㉠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
너!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
다? ㉡ 옷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좇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
다 차고 올연(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1」 -

- * 정정: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나는 소리.
- * 멩아리: 메아리.
- * 조찰히: 아담하고 깨끗하게.
- * 올연히: 홀로 우뚝하게.

(나)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옆땀다가는
해 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 놓고 먼 산 속으로 간다.

산은 날아도 새둥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 속에서도
흙 한 줌 돌 한 개 들성거리지 않는다.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 봐
지구처럼 부동(不動)의 자세로 떠간다.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옆대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꾸다.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 가다가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을 뒀신다.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를 올라간다.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

㉤ 산은 한 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고산(高山)도 되고 명산(名山)이 된다.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 김광섭, 「산」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달리 (가)는 도치의 방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
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나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현재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
의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형식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
여 운율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모습을 감각적 이미지
를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2. (가), (나)에 나타난 ‘자연’에 대해 <보기>와 연관 지어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국의 시가에는 자연을 소재로 다룬 작품이 매우 많은데, 그때 자연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처럼 친근한 존재이자 무욕(無欲)의 특성을 지닌 존재로 동경과 동화의 대상인 경우가 허다하다. 즉 작품에서 자연은 아름다운 경치의 체험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했고, 속세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공간이나 자신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공간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또 바람직한 덕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서 형상화되기도 하였다.

- ① (가)의 자연은 속세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공간으로 표현되었다.
- ② (가)의 자연은 화자가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해 깨달음을 얻는 곳이다.
- ③ (나)는 자연을 의인화하여 자연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자연의 속성을 통해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발견하고 있다.
- ⑤ (나)의 자연은 화자가 추구하는 탈속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화자가 느낀 적막감을 촉각적 심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 : ‘웃절 중’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 혼탁한 인간 세상을 대하는 산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 : 날씨의 변화가 심한 높은 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벌목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도리 큰 솔이 베혀짐
죽도 하이 ㉠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러령 돌아옴 죽도
하이 ㉡ 다람쥐도 쫓지 않고 뽀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달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
이란다? ㉣ 웃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
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히의 남긴 내음새를 쫓는다? 시
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 오
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1」 -

(나)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들이
지금 조릿대 발 높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름 모를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 벽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들이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
나는 자주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더니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을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 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길 따라 그이들을 따라 오르는 일
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 이성부, 「산길에서」 -

* 벌목정정: 나무를 베는 소리가 ‘정정’함. ‘정정’은 의성어.

* 조히: 종이.

* 조찰히: 조출히. 말쑥하고 양전하게.

* 울연히: 홀로 우뚝하니.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시적 분위기와 조응되는 예스러운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시적 대상의 자취를 후각적 심상의 시어로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현재형 문장을 사용하여 과거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시에 나오는 인물들을, 의인화한 자연물에 빗대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수산 1」의 장수산은 절대 고요만 존재하는 순결한 공간이다. 누구나 이러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희로애락(喜怒哀樂)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과 단절한 채 장수산의 순결성에 동화되어 살기란 쉽지 않다. 무욕(無慾)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장수산과 동화되어 살 수 있는 것이다.

- ① ㉠ : ‘멥아리 소리’가 들림 직하다는 표현을 통해 절대 고요의 상태를 부각하고 있군.
- ② ㉡ : 장수산에 동화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화자의 내면을 형상화한 것이로군.
- ③ ㉢ : 흰빛으로 가득 찬 장수산의 풍경을 묘사하여 장수산의 순결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④ ㉤ : 무욕의 삶을 사는 ‘웃절 중’을 통해 장수산과 동화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 : 장수산과 동화하기 위해 인간적인 감정마저도 참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6. <보기>는 (나)를 인용하여 ‘역사’에 관해 강연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어질 강연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역사란 무엇일까요? 저는 평소 역사를 만드는 과정이 길을 만드는 과정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그런 저의 생각을 담고 있는 시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성부 시인의 시 「산길에서」를 활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①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크건 작건 영향을 줍니다.
- ② 우리 민족의 과거 역사를 알면 우리 민족의 미래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③ 우리 모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주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④ 역사는 몇몇 영웅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이들이 만든 것입니다.
- 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조상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별목 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도리 큰 솔이 베혀짐
즉도 하이 골이 울어 멥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즉도 하
이 다람쥐도 쫓지 않고 뿔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녀! 달
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웃
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차히
늙은 사나이 의 남긴 내음새를 좇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
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1」-

* 정정: 나무를 벨 때 나는 소리를 흉내 낸 음성 상징어.

(나)

꽃이 지기로소니 / 바람을 탓하라.

주름 밖에 성긴 별이 / 하나 둘 스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 머언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 꽃이 지는데

꽃지는 그림자 /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달이가 / 우련 붉어라.

문혀서 사는 이의 /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 저허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 울고 싶어라.

- 조지훈, 「낙화」-

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⑤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8. <보기>는 (가)의 ‘장수산’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눈이 내려 ‘다람쥐’나 ‘뿔새’조차 살기 힘든 혹한의 공간이다.
- ㄴ. 무욕의 태도를 보이는 ‘웃절 중’의 이미지와 상통하는 공간이다.
- ㄷ. 아름드리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만 ‘멥아리’로 들리는 적막한 공간이다.
- ㄹ. 시름에 잠긴 화자가 ‘오오 견디란다’라며 탈속의 의지를 다지는 공간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9. 다음은 (나)를 감상하기 위한 활동이다. 활동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활동 과제	활동 내용
제목을 보며 작품의 내용을 상상해 보자.	제목이 ‘낙화’이니 꽃이 지는 장면을 보며 느끼는 정서를 노래한 작품일 거야.
시적 대상이 가지는 속성을 생각해 보자.	이 시에는 꽃이 일시적으로만 아름다움을 갖는 유한한 존재라는 점이 부각되어 있어. ①
각 연에 담긴 화자의 심리나 시적 상황을 추리해 보자.	1연에서 화자는 낙화를 안타까워하면서도 다른 대상을 원망하지 않고 있어. ②
	2연과 3연에 나타난 시간의 경과로 보아, 오랜 시간 동안 화자가 꽃이 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③
	5연과 6연에서는 미닫이와 꽃을 대비하여, 낙화를 보며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군. ④
	7연과 8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순수하고 여린 마음을 들킬까 봐 걱정하고 있군.
위의 활동을 종합하여 작품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	은둔자적 삶을 사는 화자가 아침에 낙화를 보면서 삶의 무상과 비애를 느끼고 있군. ⑤

[10~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벌목 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도리 큰 솔이 베혀짐
즉도 하이 골이 울어 멥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즉도 하
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뿔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녀! 달
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웃
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좇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
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1」 -

* 벌목 정정 : ‘정정’은 커다란 나무를 벨 때 울리는 ‘찌르렁’ 소리를 한문구로 표현한 것임.

* 울연히 : 홀로 우뚝하게.

(나)

[A]

<오늘, 북창(北窓)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쌍지만

태고(太古)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B]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寶玉)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C]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D]

<그 품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峨峨)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E]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정기(山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Ⅱ」 -

(다)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이십여 일이나
됩니다. 이곳에는 신문도 잘 아니 오고 체전부(遞傳夫)*는
이따금 ‘하도룡’ 빛 소식을 가져옵니다. 거기는 누에고치

와 옥수수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이 생겼나 봅니다. 나도 도회에 남기고 온 일이 걱정이 됩니다.

건너편 팔봉산에는 노루와 멧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우제(祈雨祭) 지내던 개골창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 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놓아 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그믐 칠야(漆夜)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별이 도회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 객줏집 방에는 석유 등잔을 켜 놓습니다. 그 도회지의 석간(夕刊)과 같은 그윽한 내음새가 소년 시대의 꿈을 보냅니다. 정(鄭) 형!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슬하도록 ‘호까(연초갑지)’불이던 생각이 납니다. 베짚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둣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티’ 자를 쓰고 건너긋듯이 유(類)다른 기억에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聲樂)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봅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어 머루 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詩情)을 기초합니다.

그저께신문을찢어버린

때문은흰나비

봉선화는아름다운애인의귀처럼생기고

귀에보이는지난날의기사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리물-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석영질(石英質) 광석 내음새가 나면서 폐부에 한난계(寒暖計)* 같은 길을 느낍니다. 나는 백지 위에 그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석 얹은 지붕에 별빛이 내려쬐면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엮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이런 때 참 무슨 재조(才操)로 광음(光陰)을 헤아리겠습니까? 맥박 소리가 이 방 안을 방채 시계를 만들어 버리고 장침과 단침의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쪽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코로 기계 기름 내음새가 드나듭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졸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꺾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회에 남겨 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 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 버립니다.

- 이상, 「산촌 여정」 -

* MJB : 커피의 상표.

* 체전부 : 우편배달부.

* 한난계 : 온도계.

1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특정한 대상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이 상징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점층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명령형 문장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장수산 1」은 겨울 장수산의 지극히 순수하고 고요한 세계, 세상일에 초연한 옷절 중의 모습 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속과 단절된 무욕의 공간 속에서 번뇌하면서도 탈속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화자의 결연한 태도를 드러낸다.

- ① 나무가 베어진다면 그 소리가 ‘찌르렁’ 하고 울릴 만큼 고요한 장수산에서 화자는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있군.
- ② 보름달이 뜬 ‘한밤’에 하얗게 눈 덮인 장수산은 화자의 외로움이 투영된 정신적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 ③ 승부에서 모두 지고도 웃을 수 있는 ‘옷절 중’의 초연한 모습은 세속과 절연된 장수산의 이미지와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군.
- ④ 장수산의 고요함과 대조적으로 화자의 내면은 갈등하고 있음을 ‘심히 흔들리우노니’라고 표현하고 있군.
- ⑤ ‘장수산 속 겨울 한밤’의 고요 속에서 화자는 번뇌를 잊고 ‘울연히’ 시름을 견디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12. (나)의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사람’과 ‘산’의 상반된 속성을 대비하여 ‘북창’을 열고 산을 향하여 앉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산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여 ‘너그르’우며 ‘자랑 많’고 ‘겸허한’ 산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를 통해 산에 대하여 화자가 친화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배우네’를 통해 산이 화자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에서는 ‘이승’을 ‘낮’에, ‘저승’을 ‘밤’에 비유하여, 이승에서와 달리 저승에서는 ‘산’이 화자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서는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자연에 동화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13. (나)의 산과 (다)의 도회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은 화자에게, ‘도회’는 ‘나’에게 이상적 삶의 공간이다.
- ② ‘산’은 화자에게, ‘도회’는 ‘나’에게 시련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③ ‘산’은 화자에게 현재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도회’는 ‘나’에게 미래의 삶을 계획하게 한다.
- ④ ‘산’은 화자에게 예찬의 대상이고, ‘도회’는 ‘나’에게 걱정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 ⑤ ‘산’은 화자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꾸게 하고, ‘도회’는 ‘나’가 갖고 있는 생각을 견고하게 한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산촌 여정」에서 작가는 낯선 산촌에서의 체험과 정서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도시의 삶에 익숙한 작가는 산촌의 자연적이고 향토적인 사물을 도시인의 관점에서 형상화하거나, 도시적이고 이국적인 언어를 통해 산촌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① ㉠ : 산촌에서 보는 짐승들을 ‘동물원’과 관련된 도시적 경험과 연결하며, 산촌에서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석유 등잔’의 ‘내음새’를 도시에서 접했던 ‘석간’신문의 냄새에 비유하며, 자신의 소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 ③ ㉢ : 베짖이 울음소리를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이발소 가위 소리’에 비유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도시의 경험과 관련 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 : ‘가을’이 오는 것을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으로 표현하며, 추상적인 대상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 : 꿈속에서 본 도회 소녀를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에 비유하며, 산촌에서 갖게 된 이국적인 삶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벌목정정(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릅드리 큰 솔이 베어짐 직도 하이 골이 울어 멍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움직도 하이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웃절 종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초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쭈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 정지용, 「장수산 1」 -

* 벌목정정: 깊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찼찼하고 나는 큰 소리.

* 울연히: 홀로 우뚝한 모양.

(나)

[A]

<초록으로 쓸어 놓은 마당을 낳은 고요는 새암가에 몽실몽실 수국송이로 부른다>

날아갈 것 같은 감나무를 누르고 앉은 동박새가
딱 한 번 울어서 넓히는 고요의 면적,
감잎들은 유정무정을 죄다 토설하고 있다

작년에 담가 둔 송순주 한 잔에 생각나는 건
이런 정오, 멸치국수를 말아 소반에 내놓던
어머니의 소박한 고요를

윤기 나게 닦은 마루에 꽃꽂이 앉아 들던
아버지의 묵묵한 고요,

[B]

<초록의 군림이 점점 더해지는
마당, 담장의 덩굴장미가 내쫓는 향기는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인다>

사랑은 갓어도 가락은 남아, 그 몇 절을 안주 삼고
삼베울만치나 무수한 고요를 둘러치고 앉은
고금*의 시골집 마루,

[C]

<아무것도 새어 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고요가
초록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오월의
날 비린내 나서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
- 고재종, 「고요를 시청하다」 -

* 고금: 외롭게 홀로 자는 잠자리.

15.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름드리 큰 솔’과 ‘베어짐직도 하이’를 관련지어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는 자연의 속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② ‘다람쥐도 쫓지 않고’와 ‘멧새도 울지 않아’를 연달아 제시하여 시적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도 ‘웃고 올라간’ 행동을 제시하여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난 인물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 ④ ‘바람도 일지 않는’과 ‘심히 흔들리우노니’를 대비하여 시적 공간에 동화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오오 견디란다’를 ‘차고 울연히’와 연결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6. [A]~[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새암’은 부푸는 ‘수국송이’의 모습에 비유되어 풍성한 생명력을 낳는 존재로 인식된다.
- ② [A]에서 ‘마당’을 물들인 ‘초록’은 [B]에서 점점 확산하여 ‘덩굴장미’의 색채와 어우러지며 계절감을 부각한다.
- ③ [B]에서 ‘초록’은 ‘마당’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마당에 ‘붉은 진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인식된다.
- ④ [B]에서 ‘마당’에 군림하던 ‘초록’은 [C]에서 ‘초록바람’으로 변주되어 다시 계절이 바뀔 것을 암시한다.
- ⑤ [C]에서 ‘초록바람’은 ‘오월’이 누설하는 것들을 감추어 줌으로써 ‘오월’의 신비로움이 지속되도록 한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에서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인 ‘고요’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고요한 상태를 직접 드러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리를 활용하여 고요를 부각하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또한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고요는 시에서 시적 분위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화자의 내면세계를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① (가)의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눈 내린 겨울 달밤의 고요한 분위기가 드러나도록 한 것이겠군.
- ② (나)의 화자가 떠올린 추억 속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시적 상황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정오’의 고요에 어울리는 인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맹아리 소리 찌르렁’과 (나)의 ‘동박새가 / 딱 한 번 울어서’는 모두 소리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고요한 상황이 부각되도록 한 것이겠군.
- ④ (가)의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나)의 ‘삼베울만치나 무수한 고요’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⑤ (가)의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는 화자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의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는 외부 세계의 고요가 화자 내면의 동요를 잠재우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별목 정정 이랬거니 아름다리 큰 솔이 베어짐직도 하이
 골이 울어 **맹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
 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옷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차히 ㉠ **높은 사나**
 의의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
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히 **슬픔**
 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 정지용, 「장수산 1」 -

(나)

상수리는 일흔 번 제 씨앗을 땅으로 보내고도
 아직 청년으로 살아 있다
 신발에 물소리가 감기는 파계천(把溪川)에서는
물소리와 쓰르라미 소리가 구별되지 않는다
 눈앞에 펼쳐진 수해(樹海) 속의 잎들은 모두 쾌청이어서
 여기 오면 **고뇌란 오직 인간의 몫**임을 불전(佛典) 없이
 도 안다

반짝이는 **잎새**들의 민감한 흡입력으로
햇살은 남김없이 푸름 속으로 빨려 들어
 산 하나가 온통 초록의 대관식에 취해 있다
 앞서간 바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서간 **사람들만** 마을의 안부가 궁금해 뒤를 돌아본다

소나무 잣나무들은 등치마다 태고를 닮은 **껍질**의 옷을
 입고 있다

옷 한 벌이면 넉넉히 일생을 건디는 나무들 곁에서
사람들만 아침저녁 옷 벗고 옷 갈아입는다
산에 든 자 삭발하고 베옷 입음은
 절록(絶綠)을 뜻함이 아니라 **뼈를 갈아 끼우지 못하는**
육신을

냉혹으로 다스리기 위함이다

길 위에 발자국 남기지 않은 선승(禪僧)들은
 가랑잎을 밟고 경전의 침묵 속으로 사라지고
 길 끝에 달린 시장에는 푸른 오전부터
 상품과 선거 포스터로 들끓는다

맨발로 서면 다람쥐 족제비들도 맘에 닿는 이 산속에서

나는 왜 옷과 신발을 벗어 전나무 가지에 던질 수 없나

- 이기철, 「나무의 옷」 -

(다)

겨울바람에 잎과 열매를 훨훨 떨쳐 버리고 빈 가지만
 남은 잡목 숲. **가랑잎**을 밟으며 석양에 이런 숲길을 거닐
 면 문득 나는 내 몫의 삶을 이끌고 **지금 어디쯤에 와 있**
는가를 헤아리게 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한번 지나가
 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그 세월을 제대로 살아왔는가
 를 돌이켜 볼 때 나는 우울하다.

가랑잎 밟기가 조금은 조심스럽다. 아무렇게나 흘려져
 누워 있는 가랑잎 하나에도 존재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넘어서볼 수 없는 그들만의 질서와 세계가 있을
 법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있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 때
 문에 거기 그렇게 존재한다.

지난가을, 말뚝을 갠느라고 거의 산거를 비우다시피 하
 면서 여기저기 시정을 동분서주했었다. 일을 마치고 산으
 로 돌아오자 그사이 잎이 물들었다가 벌써 낙엽이 지고
 있었다. 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밤바람 소리에 한동안 잊
 고 지내던 내 속들이 되살아났다. 평화와 정적이 깃든 그
 내면의 여로(旅路).

산에서 듣는 **바람** 소리는 귓전만을 스치는 것이 아니
 다. 저 뺨속에 묻은 먼지까지도, 땀줄에 섞인 티끌까지도
 맑게 씻어 주는 것 같다. 산바람 소리는 갓 비질을 하고
 난 뜰처럼 우리들 마음속을 차분하고 정결하게 가라앉혀
 준다. 인간의 도시에서 묻은 온갖 오염을 씻어 준다. 아무
 런 잡념도 없는 무심을 열어 준다.

바람, 눈에 보이지도 붙잡을 수도 없는 나그네. 보이지
 도 붙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살아서 움직인
 다. 그리고 그 손길이 닿는 것마다 생기를 돌게 한다. 이
 세상에 만약 바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살아 있는 것은
 시들시들 질식하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은 빛이 바래 재가
 되고 말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보이는 것이 있게 되고, 들리지 않는 것을 의지해서 들리
 는 것이 있게 된다.

(중략)

흔히 겪는 일인데, 산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마루
 에 걸터앉아 앞산을 내다보기가 바쁘게 “왜 이렇게 조용
 하지요?”라든가 “너무 고요해 안 되겠는데요.”라고 하면
 서 무엇에 쫓기듯 안절부절 불안해하는 부류들이 있다.
 물론 그들은 도시에 사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 말하
 자면 ㉡ **도시형 관념적인 지식인들**이다. 그들은 **도시의**
혼잡과 소음에 잔뜩 중독된 나머지 원초적인 질서와 **고요**
 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다. 어디에도 의존함이 없이 순
 수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무엇
 엔가 기대지 않고는 홀로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고요를 감내할 수 없어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묻히도록, 맑고 투명한 새소리가 무색하도
 록 트랜지스터를 틀어 대거나 고래고래 고향을 질러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정말 이상야릇하게 변질되어가고 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은 '있음'에만 의존하는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현상에만 매달리는 것일까. 침묵이 없이 어떻게 인간의 언어가 발음될 수 있단 말인가. 바다가 없이 어찌 육지만 덩그러니 솟을 수 있을까. 어느 하나 허(虛)를 배경 삼지 않은 실(實)은 존재할 수 없다.

- 법정, 「겨울 숲」 -

1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공간적 배경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감이 드러나는 표현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대립적 속성을 지닌 대상을 병치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19.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다람쥐', '멧새'는 혹독한 추위 속에 생명력을 상실한 자연물로 무기력한 화자를 형상화한 것이군.
- ② (가)의 '오오 견디란다'는 '겨울', '장수산'과 같은 순수의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 것이군.
- ③ (나)의 '사람들만'이라는 표현의 반복은 정적인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군.
- ④ (가)의 '멧아리 소리'와 (나)의 '물소리와 쓰르라미 소리'는 모두 인간 세상의 번잡함을 정화하는 자연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군.
- ⑤ (가)의 '슬픔도 꿈도 없이'와 (나)의 '고뇌란 오직 인간의 몫'은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절망적인 인식이 투영된 것이군.

20. (가), (다)의 고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고요'는 (다)의 '고요'와 달리 움직임마저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 정적에 가깝다.
- ② (다)의 '고요'는 (가)의 '고요'와 달리 회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③ (가)의 '고요'는 심리적 동요를 심화하는, (다)의 '고요'는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 ④ (가), (다)의 '고요'는 모두 과거를 돌아보며 자아를 성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가), (다)의 '고요'는 모두 인간 세상과 동떨어진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간이 지닌 유한함을 극복한 인물이고, ㉡은 자연이 지닌 무한함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 ② ㉠은 자연 속에서 무욕의 삶에 만족하는 인물이고, ㉡은 자연 속에서 세속적 욕망을 거부하는 인물이다.
- ③ ㉠은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인물이고, ㉡은 자연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는 인물이다.
- ④ ㉠은 자연 속에서 타인과의 교감을 거부하는 인물이고, ㉡은 자연 속에서 인간 세상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인물이다.
- ⑤ ㉠은 인간적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에 도달한 인물이고, ㉡은 인간적 욕망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향하는 인물이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나)와 (다)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와 글쓴이에게 촉발된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는 자연물의 미세한 부분이나 무심코 놓치기 쉬운 자연 현상을 포착하고 자아를 성찰하며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마음을, (다)의 글쓴이는 자연이 일깨워 주는 삶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 ① (나)의 ‘잎새’에 비추는 ‘햇살’과 ‘소나무 잣나무’의 ‘껍질’, (다)의 ‘겨울바람’에 떨어진 ‘가랑잎’과 ‘산’에 부는 ‘바람’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포착한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군.
- ② (나)의 ‘사람들만 아침저녁 옷 벗고 옷 갈아입는다’와 (다)의 ‘현대인들’은 ‘이상야릇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에는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화자와 글쓴이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군.
- ③ (나)의 ‘뺨를 갈아 끼우지 못하는 육신’을 지닌 ‘산에 든 자’와 (다)의 ‘도시의 혼잡과 소음에 잔뜩 중독된’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대인으로 볼 수 있군.
- ④ (나)의 ‘다람쥐 족제비’와의 교감을 위해 ‘맨발로 서’는 것은 자연에 동화되려는 행위이고, (다)의 ‘어느 하나 허를 배경 삼지 않은 실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자연이 일깨워 준 삶에 대한 통찰이라고 볼 수 있군.
- ⑤ (나)의 화자가 ‘옷과 신발을 벗어’ ‘던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는 행위와 (다)의 글쓴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헤아리’는 행위에는 모두 화자와 글쓴이의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군.

23. (다)에 드러난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상 만물은 모두 존재의 이유가 있다.
- ② 산바람 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든다.
- ③ 도시의 혼잡과 소음은 인간을 오염시킨다.
- ④ 침묵이 있어야만 인간의 언어도 돋보인다.
- ⑤ 현대인들은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지향한다.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1.

[정답 SCAN] ③

- ③ (가)와 (나)는 모두 현재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였지만, 두 작품 모두 현실 극복 의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가)에 현실을 견디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면, (나)는 현재형 어미를 통해 화자가 시적 대상인 '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인식을 전달하고 있을 뿐,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SCAN]

- ① (가)의 마지막 부분은 '장수산 속 겨울 한밤에 ~ 견디란다'로 서술하는 것이 문장의 정상적인 어순이지만, 시에서는 이 어순을 바꾸어 장수산의 고요 속에서 시름을 견뎌 내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도치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어순의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 ② (가)는 '희고녀!'와 같은 영탄적 표현으로 산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오오 견디란다'와 같은 영탄적 표현으로 현실을 견디겠다는 화자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영탄적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 ④ (가)는 '~이 ~죽도하이', '~을 ~다?' 등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느끼게 한다. (나)는 대부분의 연이 '산은 ~다'의 문장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 운율을 느끼게 한다.
- ⑤ (가)는 장수산의 분위기를 청각, 시각, 후각 등의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로, (나)는 '산'의 다양한 모습을 주로 시각적 심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2.

[정답 SCAN] ⑤

- ⑤ (나)의 자연, 즉 산은 화자가 동화되고 싶은 바람직한 인간의 덕성을 지닌 대상으로,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산을 닮고 싶어 한다. 그런데 (나)는 화자가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지, 또 산을 그런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답 SCAN]

- ① (가)의 자연은 깊은 산중으로,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 '웃절 중'처럼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난 공간이다.
- ② (가)의 화자는 '장수산'에서 현재 자신이 시름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성찰하고, 앞으로는 아담하고 깨끗한 태도로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밝히고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산'을 마치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처럼 표현했는데, 이러한 표현에는 산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이 담겨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산을 조화와 배려, 넉넉한 성품을 지닌 존재로 그리고 있다.

3.

[정답 SCAN] ⑤

- ⑤ ㉔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산은 넉넉함과 자애로움으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품으며 감싸준다. 그러나 산은 무한한 포용력만 지니는 것은 아니다. ㉔의 '신경질'은 바람직하지 않은 삶을 사는 인간에 대한 산의 엄한 꾸지람으로, 이로 인해 인간은 산의 소중함과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㉔는 날씨 변화가 심한 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아니라, 인간에게 엄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 주는 산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SCAN]

- ① '뼈를 저리우는 데'는 장수산의 지극한 고요함을 촉각적 심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② '조잘히 늙은 ~ 내음새를 좇는다?'에는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난 '웃절 중'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새벽녘에 산이 '학'처럼 날개를 펴는 것은 햇살을 받아 산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남을 표현한 것이고, 해 질 무렵에 '기러기'처럼 날아 틀만 남기는 것은 해가 저물어 산이 서서히 어둠에 묻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인간과 더불어 살려는 산도 인간 세상이 혼탁할 때에는 인간 세상을 떠나려고 한다. 즉 산은 혼탁한 인간 세상을 멀리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4.

[정답 SCAN] ③

- ③ (가)와 (나) 모두 현재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에서는 현재 화자가 자신이 있는 공간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 (나)에서는 공간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두 작품 모두에서는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SCAN]

- ① (가)에서는 '하이', '-고녀!', '-이란다?'와 같은 낯설고 예스러운 어투를 사용하여 신비로운 동양적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늙은 사나이가 지닌 삶의 태도를 후각적 심상의 시어인 '내음새'로 표현하였고, (나)에서도 길을 만든 사람들의 흔적을 '내음'으로 표현하였다.
- ④ (나)에는 길을 만든 이들을 소리치는 '바람'이나 수줍어하는 '풀꽃'에 빗대었다.
- ⑤ (가)에서는 '희고녀!'와 '오오 견디란다'처럼 영탄법이 사용되었지만, (나)에는 영탄법이 쓰이지 않았다.

5.

[정답 SCAN] ②

- ② ㉠은 작은 짐승의 움직임조차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고요한 장수산의 적막감을 촉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장수산이 절대 고요만 존재하는 순결한 공간임을 절감하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장수산에 동화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화자의 심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SCAN]

- ① ‘찌르렁’하는 메아리 소리가 들릴 것 같다는 것은 그만큼 장수산이 깊은 산임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는 장수산이 매우 고요한 상태임을 부각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③ 보름달이 비치고 눈이 내려 종이보다 흰 산의 모습을 통해 장수산의 순결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여섯 판을 내리 지고도 웃으며 올라가는 ‘웃절 중’은 자족과 여유를 보여 주는 인물로, 탈속적인 장수산의 모습과 닮았다.
- ⑤ ‘슬픔’과 ‘꿈’은 인간적 감정과 관련된 것으로 화자는 장수산에서 이런 것들을 견디겠다고 말하고 있다.

6.

[정답 SCAN] ②

- ② [보기]의 강연자처럼 이 작품의 ‘길’이 ‘역사’를 은유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에는 역사를 누가 만들었는지, 또 그런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할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오답 SCAN]

- ① ‘길’을 만든 이는 ‘바람’처럼 소리를 치거나, ‘풀꽃’처럼 수줍게 다가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삶에 ‘바람’이나 ‘풀꽃’처럼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 ③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것은 내가 바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④ ‘길’이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들’뿐 아니라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처럼 역사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이 조금씩 기여하여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길을 만든 사람들의 ‘옛 내음’은 과거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선인들의 삶에 해당한다.

7.

[정답 SCAN] ②

- ② (가)는 흰 눈과 달빛의 백색 이미지와 메아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나)는 떨어지는 꽃의 붉은색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답 SCAN]

- ① (가)와 (나)에서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독백적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에는 ‘정정’, ‘찌르렁’의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고 있으나, (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와 (나)는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8.

[정답 SCAN] ㉠

㉠: ‘장수산’은 희고 고요한 이미지를 지닌 탈속적인 공간으로 내기에 지고도 웃음을 잃지 않는 무욕적인 ‘웃절 중’에게 어울리는 공간이다. 즉 ‘장수산’과 ‘웃절 중’은 상통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아름드리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만 찌르렁 울린다는 것은 그만큼 ‘장수산’이 고요한 공간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 시름과 슬픔 등 세속적 감정에 시달리는 화자는 ‘장수산’의 고요하고 탈속적인 이미지 속에 묻혀 세속적 욕망을 잊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SCAN]

㉣: 이 시에서 ‘눈’은 차가움의 이미지보다는 백색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장수산의 고요함을 더욱 심화하면서 달밤과 어울려 탈속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다람쥐’와 ‘뿔새’가 없다는 것도 절대적인 고요를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추위를 드러내고자 한 것은 아니다.

9.

[정답 SCAN] ④

- ④ 미닫이의 흰색과 꽃의 붉은색의 대비를 통해 낙화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으나 그러한 낙화를 보는 삶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화자는 현실과 단절하여 꽃과 지내왔는데 꽃이 지는 아침에 삶의 무상과 비애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SCAN]

- ① 하얀 미닫이를 은은한 붉은 색으로 물들이는 꽃은 아름다운 대상이지만 그 꽃은 떨어져 생명을 마치는 유한한 존재로 인식되어 비애를 느끼게 하고 있다.
- ② 꽃이 지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자연 현상임을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 ③ 별이 사라지고 '머언 산이 다가서다.'라는 것은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화자가 오랜 시간 동안 낙화를 보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 ⑤ '묻혀서 사는 이'에서 화자가 은둔자임을 알 수 있으며 마지막 연에서 꽃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무상감과 비애를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정답 SCAN] ①

- ① (가)의 화자는 순수하고 고요한 공간 속에서 세속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무욕적이고 탈속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산'을 통해 산의 덕을 배우며 문명에 물들지 않고 자연에 동화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11.

[정답 SCAN] ②

- ② 정밀한 고요 속에 보름달이 비치고 하얗게 눈이 덮인 장수산의 밤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순수함이 부각되어 무욕의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정신적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장수산의 고요 속에서 화자는 번뇌를 잊고 시름을 담담히 견디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장수산이 화자의 외로움이 투영된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2.

[정답 SCAN] ④

- ④ [D]에서는 산과 화자의 관련성을 '그 품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로 표현하여 산을 매개로 화자의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승과 저승의 구분 없이 화자가 산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답 SCAN]

- ① '사람'은 변하지만 '산'은 변함없이 태고로부터 푸르러 왔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또한 화자가 산을 향해 앓은 것은 이러한 '산'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13.

[정답 SCAN] ④

- ④ (나)의 화자는 '산'을 향하여 앉아 사람과 달리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산에 인격적인 속성을 부여하여 너그럽고 검허한 산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또한 산과 함께 하는 삶을 동경하고 평생 산을 바라보며 산의 모습을 배우고자 한다는 점에서 산은 화자에게 예찬의 대상이 된다. (다)의 '나'는 도회를 떠나 산촌에 머물면서 도회에 남기고 온 가족의 안부를 염려하기도 하고, 도회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식구들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한다. 따라서 '도회'는 '나'에게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14.

[정답 SCAN] ⑤

- ⑤ 꿈에 나온 도회 소녀의 생김새를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에 비유하여 이국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작가가 이국적인 삶에 대해 동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5.

[정답 SCAN] ①

- ① '아름드리 큰 솔'이 '베어짐직도 하이'라고 한 것은 깊은 산속에서 큰 나무들이 베어지며 내는 소리를 환기하여 깊은 산속의 고요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는 자연의 속성이 환기된 것은 아니다.

16.

[정답 SCAN] ②

- ② [A]에서는 고요가 초록을 낳았다는 표현을 통해 마당을 물들인 초록에 주목하도록 한다. 이어지는 [B]에서는 초록의 군림이 점점 더해진다는 표현을 통해 마당에 초록이 점점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이는 덩굴장미의 붉은 색채가 어우러지면서 오월의 계절감이 부각된다.

17.

[정답 SCAN] ⑤

- ⑤ (가)의 화자는 바람도 일지 않는 장수산의 고요에도 심히 흔들리는 시름을 안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화자 내면의 고요가 외부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SCAN]

- ① (가)의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는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하얗게 눈이 내린 겨울 달밤의 고요한 장수산의 분위기를 잘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 ② (나)의 화자가 송순주 한 잔에 떠올린 추억 속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소박한 고요’와 ‘묵묵한 고요’를 담고 있는 인물들로, 화자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정오’의 고요에 잘 어울리는 인물로 볼 수 있다.
- ③ ‘찌르렁’하고 들릴 것 같은 깊은 산속의 메아리 소리와 딱 한 번 들린 동박새의 울음소리는 모두 고요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 소리이다. 고요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고요가 부각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 ④ (가)의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표현한 것이고, (나)의 ‘삼베울 만치나 무수한 고요’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한 것이다.

18.

[정답 SCAN] ③

- ③ (가)는 장수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 눈, 달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청각적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나)는 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 물소리, 쓰르라미 소리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와 초록이 가득한 산과 햇살의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는 가을과 겨울의 숲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 산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각적 이미지와 바람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SCAN]

- ① (나)에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가), (나), (다) 모두에서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시상이나 내용을 전개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 ④ (가), (나), (다) 모두에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나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⑤ (가), (나), (다) 모두에 대립적 속성을 지닌 대상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대상을 병치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19.

[정답 SCAN] ②

- ② (가)의 ‘오오 견디란다’는 겨울내 새하얀 장수산에서 침잠하며 순수한 내면 의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태도가 드러난 시구로 볼 수 있다.

[오답 SCAN]

- ① (가)의 ‘다람쥐’와 ‘멧새’는 추운 겨울 활동이 끊어져 생명력이 잦아든 자연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물은 겨울 장수산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상황과 분위기를 제시하기 위해 활용된 것일 뿐 무기력한 화자를 형상화한 자연물은 아니다.
- ③ (나)의 ‘사람들만’은 ‘만’이라는 보조사를 통해 자연과 사람의 차이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반복이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의 ‘멧아리 소리’는 장수산의 고요함을 부각하기 위해 환기한 소리이다. 그러므로 이 소리는 인간 세상의 번잡함을 정화하는 자연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 ⑤ (가)의 ‘슬픔도 꿈도 없이’는 화자가 겪고 있는 심리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화자의 절망적인 인식이 투영되어 있지는 않다. 또 (나)의 ‘고뇌란 오직 인간의 몫’은 자연 속에서는 고뇌가 존재하지 않는 데 반해 인간 세상과 인간의 삶 속에서만 ‘고뇌’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시구이다. 그러므로 이 시구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절망적인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

[정답 SCAN] ④

- ④ (다)의 글쓴이가 자연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요’는 글쓴이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의 ‘고요’는 ‘시름은 ~ 심히 흔들리우노니’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시름’을 더욱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의 ‘고요’가 화자로 하여금 자아를 성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SCAN]

- ① (가)의 ‘고요’는 겨울철 장수산 깊은 곳에서 자연물의 생명 활동이 중지된 무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다)의 ‘고요’는 어디에도 의존함이 없이 순수하게 홀로 있는 시간으로서 글쓴이는 이러한 ‘고요’ 속에 시냇물 소리와 새소리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가)는 (다)와 달리 절대적인 정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의 ‘고요’는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회복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다)의 글쓴이는, ‘고요’를 번잡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회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③ (가)에서 ‘시름은 ~ 심히 흔들리우노니’라고 표현하였으므로 ‘고요’가 화자의 심리적 동요를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에서 글쓴이는 겨울 숲의 ‘고요’를 평화와 정적이 깃든 내면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의 ‘고요’는 화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가)의 ‘고요’는 겨울 장수산의 깊은 산골에서, (다)의 ‘고요’ 역시 마음의 평화와 정적을 가져올 정도로 인간 세상과 동떨어진 숲속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다.

21.

[정답 SCAN] ③

- ③ (가)의 ㉠은 시의 맥락상 장수산 깊은 산골에서 기거하는 ‘웃절 중’을 의미하며, ‘웃절 중’은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웃고 올라간 존재이므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또 (다)의 ㉡은 산 속의 고요를 감내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현대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은 자연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오답 SCAN]

- ① ㉠은 일반적인 인간을 초월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은 자연 속의 고요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물로서 자연이 지닌 무한함을 추구하는 인물로 보기 어렵다.
- ② ㉠은 장수산에서 기거하며 여섯 번 지고도 웃음을 짓는 인물이므로 자연 속에서 무욕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은 자연 속의 고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불안을 느끼며 트랜지스터를 틀어 대거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것 같은 인물이므로 세속적 욕망을 거부한 인물로 볼 수 없다.
- ④ ㉠은 자연 속에 기거하고 있지만 타인과의 교감을 거부하는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또 ㉡은 자연에 있으면서도 트랜지스터를 틀어 대거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것 같은 인물이므로 인간 세상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인물로 보기 어렵다. ⑤ ㉠은 마음의 평화에 도달한 인물로 볼 수 있지만, ㉡은 자연 속의 고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이므로 인간적 욕망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향하는 인물로 보기 어렵다.

22.

[정답 SCAN] ③

- ③ (나)의 ‘빠를 갈아 끼우지 못하는 육신’을 지닌 ‘산에 든 자’는 삭발을 하고 베옷을 입은 채 산속에서 기거하는 사람이므로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하던 ‘선승’과 같은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은 자연에 귀의하여 살아가는 인물로 볼 수 있으므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대인으로 볼 수 없다.

[오답 SCAN]

- ① (나)의 화자는 산속에서 ‘잎새’에 비추는 ‘햇살’을 보며 초록에 취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의 글쓴이는 가을과 겨울 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를 듣고 떨어진 ‘가랑잎’을 조심스럽게 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사람들만 아침저녁 옷 벗고 옷 갈아입는다’라는 표현은 나무들은 껍질의 옷으로 일생을 넉넉히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욕망에 쫓겨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에는 사람들에게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의 ‘현대인들’이 원초적 질서와 고요를 망각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표현에도 (다)의 글쓴이가 지닌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맨발로 서’면 자연물인 ‘다람쥐 족제비’들도 맘에 닿는다고 하였으므로 ‘맨발로 서’는 행위는 곧 자연과 동화되려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의 ‘어느 하나 허를 배경 삼지 않은 실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글쓴이의 생각은 자연 속 고요를 통해 화자가 깨달게 된 삶에 대한 통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의 화자는 ‘옷과 신발을 벗어’ ‘던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화자가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심리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의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헤아리’는 행위는 글쓴이가 겨울 숲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23.

[정답 SCAN] ⑤

- ⑤ 7~8문단에서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기대지 않고는 홀로 설 수가 없는 존재이며, 자연 속의 고요를 즐기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SCAN]

- ① 2문단에서 글쓴이는, 세상 모든 것은 있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있는 특정한 곳에 존재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 ② 4문단에서 글쓴이는, 산바람 소리가 우리들 마음속을 차분하고 정결하게 가라앉혀 준다고 하였다.
- ③ 4문단에서 산에서 듣는 바람 소리는 인간의 도시에서 묻은 온갖 오염을 씻어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7문단에서 현대인들은 도시의 혼잡과 소음에 잔뜩 중독된 나머지 원초적인 질서와 고요를 잊어버렸다고 하였다.
- ④ 9문단에서 침묵이 없이 어떻게 인간의 언어가 발음될 수 있단 말인가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